

ITALY



연간 천억불이 관광대국 - 이탈리아

‘본 조르노’!

이탈리아에 갔다.

작년은 예수탄생 2천년, 즉 카톨릭의 표현으로는 <대희년>(大喜年)이었다.

예수 탄생 2천년을 맞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탈리아의 종교 성지에는 전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참배객, 관광객들이 들이닥쳤다.

작년에 이탈리아를 찾은 관광객은 무려 5천만 명이었다. 평소보다는 2~3배가 많은 숫자인 셈이다.

지천으로 로마시대의 문화유산이 깔려있는 나라, 땅만 파면 옛 성곽이나 궁궐, 집터, 조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

로마에는 지하철 노선이 두 개 밖에 없다. 그 두 개 뿐인 지하철을 파는데도 28년이나 걸렸다. 그 이유는 땅 속에 묻힌 문화재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지하철 노선을 뚫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꺼번에 불도저로 주욱 밀어버려서 시원스럽게 직선지하철을 뚫을 테지만, 이 나라 국민은 그런 시원함이 없다.

아, 우리가 모자란 건가, 저쪽이 모자란 건가. 그 덕분에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는 나라이다.

그 수입만도 년 간 천억불이 넘는단가.

대희년을 맞아 한꺼번에 들이닥친 관광객 덕분에 호텔방을 잡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로마 시내의 호텔은 아예 방이 없었고, 그나마

좀 남아있는 방들은 마피아 조직이 미리 방을 매점 매석해서 평소의 2~3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평소에는 10만원이면 잘 수 있는 별 4개 짜리 호텔방이 이 때는 22만원 이상으로 꺾충 올라있었다.

마피아인지, 소피아인지 그래도 되는 건가.

그나마 비싼 값으로도 방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로마시에서 40,50분이나 떨어진 변두리 외곽에 간신히 방을 구했다. 나 역시 그건 마찬가지였다.

겨우 구한 호텔방은 로마에서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무려 40분인 거리, 서울에서 수원가는 만큼이나 먼 곳이었다.

하지만, 관광대국 이탈리아답게 별 네 개짜리



▲ 과일과 생선이 아주 풍부한 나폴리 시장의 분주한 모습

호텔치고는 최상급이었다.
 유럽을 여행하다보면 호텔같이 싸면서도 방이
 좋은 곳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이다.
 현대 작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은 로마
 교황이 사는 바티칸시국과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유명 성당, 유적들이었다.
 그래서인지 이름난 성당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관광버스로 들이닥치는 엄청난
 참배객들을 맞기에 바빴다.

나 역시 그런 관광객들 틈에 끼어서 바티칸
 시국을 비롯한 베드로 성당, 예수교를 믿었던
 노예들을 사자와 싸움시켰던 콜로세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세 샘터 성당, 지하묘지인
 카타콤베 등을 돌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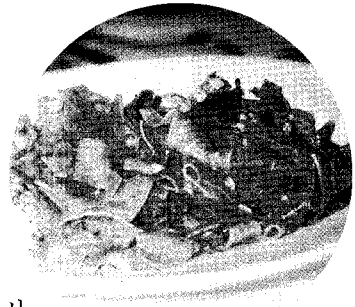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두 시간쯤 앉아서 죽치는
 스페인 계단에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 주연의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트레비 분수 앞은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점심에는 악착같이 스파게티를 먹었다.
 본 고장에 왔으니 물리도록 먹다가야 할 것이
 아닌가. 스파게티는 맛있었다. 그리고 나폴리
 피자를 밤마다 한판씩 시켜서 먹었는데, 아!

그건 정말로 고역이었다.

우라지게 짜기만 하고,
 씹을 것이라곤 밀가루
 떡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피자 의
 맛과 나폴리
 피자는 영 다른
 것이었다.



토핑(고명)은
 아예 없는
 밀가루떡 나폴리
 피자.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하루
 날을 잡아 나폴리로 직접가서
 피자를 먹어보기로 했다.

미항 나폴리는 참외로 유명

게다가 나폴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라지 않는가.

드디어 날을 잡아 나를 안내하던 이탈리아인
 프랑코에게 나폴리에 가자고 했다.
 역도선수보다 체격이 더 좋은 프랑코가 갑자기
 똥 씹은 표정이 됐다.

'거긴 위험해서 가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게 뭘 소리냐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더니, 나폴리에 들어가서 주차해놓고
 1시간 반 만 지나면, 차가 통째로 분해되서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치안이 안 좋은
 곳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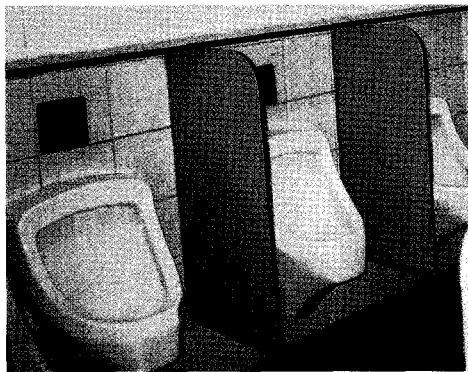
조금 심각했지만, 그렇다고 안 갈 내가 아니다.
 차를 몰고 나폴리로 떠났다.

<이탈리아 내 실업률 1위, 범죄율 1위, 10명당
 1명은 마피아, 관광객은 아예 없음,
 주차하더라도 차는 절대 떠나면 안됨>

프랑코가 겁주던 대로 나폴리 시내에
 들어가니,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경찰이 반,
 시민이 반이다.

게다가 관광객은 정말 아예 없다.
 그리고 시내를 한바퀴 돌아보니 아름다운
 미항이라기 보다 도떼기시장이자,
 차선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고, 쓰레기는





◀ 세련된 칸막이로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등 사용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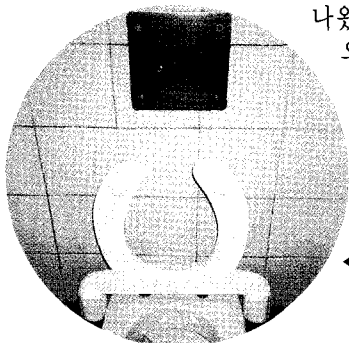
바람에 날려다니고, 10대의 조무래기 소년들이 바지주머니에 손을 찢러 넣고 싸돌아 다니고 있었다.

프랑코가 그 아이들을 보며 200불이면 한 명 처치해주는 애들이 바로 저 꼬맹이들이라며 외면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나폴리 땅을 밟아보지 않을 수는 없다. 결국 프랑코는 차에서 버티고, 나는 그 유명한 나폴리 시장 구경을 떠났다.

나폴리 시장은 과일과 생선이 아주 풍부했다. 모두 싱싱한 것들이었다. 오렌지 주스도 즉석에서 짜서 팔았다. 그것도 한잔에 1500원. 주스도 마시고, 생선전도 기웃거리고, 품질 좋은 구두방에도 가보고 돌아다니는데 멀리서 프랑코가 떨어 죽겠으니 이만 가자며 손을 흔든다.

하는 수없이 나폴리 시내를 빠져 나와 소렌토로 차를 몰았다. 외곽 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아앗, 그만 오줌보가 당긴다.



◀ 이탈리아의 화장실은 벨브가 한국식으로 손잡이형이 아닌 보턴식으로 되어 있다.

어디에 가서 오줌을 눌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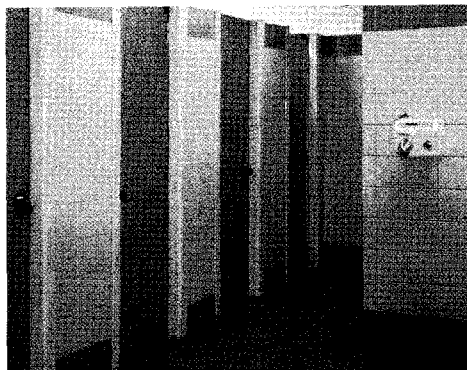
역시 고속도로 휴게소.

이 나라는 어느정도 수준인가, 들어가 보았다. 벽타일에는 무늬를 놓고, 화장실은 청결하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좌변기의 물 내리는 밸브가 한국식으로 손잡이형이 아니라, 명쾌만한 크기로 등 뒤쪽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보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시원스럽게 크게 달아놓았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본 물내림 보턴으로서는 최대의 것이었다. 나중에 보니 그건 고속도로 화장실 뿐만 아니고 대다수 화장실이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

오우, 비바 이탈리아노!



홍 하 상

-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회 전문위원
-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 저서 : '일본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 소설 : '외인부대원 꼬레앙'